

#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탐구

##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 고전 · ② 한국철학편

홍원식 · 계명대 철학과 교수

《출판저널》에서 국내 각 분야의 지식인 100명의 추천을 토대로 작성한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 책들》 130종에 한국 철학 분야에서 총 6종의 책이 '21세기에도 남을' 20세기의 고전으로 선정됐다. 6편 중 전통 철학에 대한 연구서가 4종, 서양 철학에 대한 연구서가 1종, 그리고 동서 철학을 비교, 회통시키는 것이 1종이다.

우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전통 철학에 대한 연구서가 4종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 철학이란 한국의 전통 철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반영하는 듯하다. 그러나 과연 20세기의 '한국' 철학이란 무엇이며, 더욱이 '21세기에도 남을' 20세기의 한국 철학 고전이 무엇일지를 생각할 때, 전통 철학에 대한 연구서가 20세기의 한국 철학에 있어서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20세기의 한국 철학이란 결코 한문의 무덤을 뒤지고 해석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한국의 현실을 딛고 서서 철학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20세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퇴계는 칸트만큼이나 낯설며, 동시에 칸트는 퇴계만큼이나 낯익다'는 평소 나의 지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양 철학과 더불어 중국이나 인도 철학 등이 빠지거나 소홀히 다뤄진 것이 못내 아쉽다.

### 유학사상 중심의 전통철학 연구

전통 철학 연구 방법에서는 비교적 고르게 가려 뽑았다. 먼저 유학사상 방면을 보면 통사로 씌어진 《조선유학사》가 있고, 한국 주자학의 거봉 퇴계 이황(1501~1570)에 대한 연구서인 《퇴계의 생애와 학문》과 한국 양명학의 기념비적 저작이라 할 수 있는 《양명학연론》이 있다. 도교 방면에서는 《조선도교사》가, 불교 방면에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지만 《선(禪)의 세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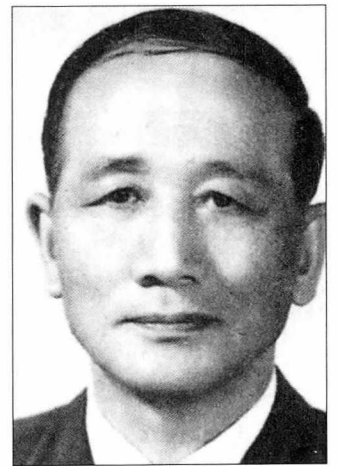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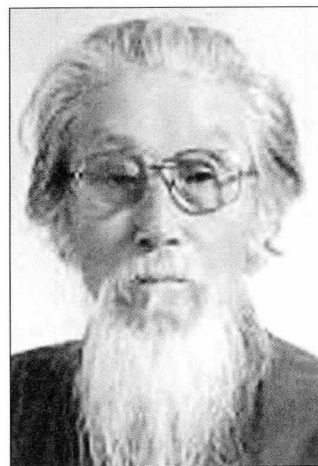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현상윤의 저작인 《조선유학사》(1949년)는 근대적 학문방법에 따라 씌어진 최초의 한국 유학사로서 한국의 유학과 철학에 대한 연구의 물

꼬를 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제 더이상 유학을 자신의 세계관이나 철학이란 관점에서가 아니라 학문의 대상이란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의 서문에서 지은이가 유학의 역사적 공죄(功罪)에 대해 논하는 대목이 특히 눈에 띈다.

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통치 이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유학은 조선의 망국과 더불어 그 책임을 죄다 덮어쓰고 부정일변도로 인식되던 마당에 죄와 함께 공을 논함으로써 유학의 재평가와 새로운 전개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순수하게 이론적 측면에서 조선 유학의 자부심을 퇴계의 철학에서 찾는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이제 퇴계 철학은 부활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근대 민족사학자요, 시조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정인보의 《양명학연론》(1933년)은 주자학 왕조였던 조선시대 내내 이단으로 지목되면서 잠깐해오다가 드디어 그 '한'을 풀게된 양명학자의 양명학 저작이자 양명학에 대한 연구서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가 한말 박은식과 강화화파 이견방 등의 양명학 맥을 잇고 있으면서도 연희전문학교 등에서 연구와 강의한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그의 생애나 학문은 여러모로 과도기적 위치에 서 있으나 그 학문적 위치는 단순히 과도기적 모습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그가 《양명학연론》을 쓰게 된 연유를 밝히는 대목을 보면, 그것이 단순히 학문적 관심사에서가 아니라 일제 강점이라는 현실의 난제를 풀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세계관이나 '강단' 철학의 입장에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실천' 철학의 관점에서 이 책을 쓴 것

**전통철학 연구서가 20세기 한국철학에 있어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20세기 한국철학은 결코 학문의 무덤을 뒤지고 해석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20세기 한국의 현실을 딛고 서서 철학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왼쪽 위부터  
정인보 · 현상윤 ·  
고형근 · 박종홍.

이다. 이 책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철학함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

### '퇴계학 르네상스'

이상윤의 《퇴계의 생애와 학문》(1973년)은 현상윤의 《조선유학사》와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상윤이 현상윤과 같은 학교에 교수로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지만 연구 작업의 측면에서 계승적 측면이 보이기 때문이다. 현상윤에 의해 올려진 한국 전통 유학과 철학에 대한 연구의 깃발이 하나의 커다란 결실로 맺어진 것이 바로 이 책이다. 한국 유학의 연구는 여기에 이르러 분수령을 이루면서 질적 고양과 양적 팽창을 하게 된다.

곧 퇴계학 연구의 확산과 국제화 바람, 이른바 '퇴계학 르네상스' 시대를 맞게 된다. 연구 대상도 이제 율곡으로, 실학으로 점점 더 넓어진다. 그는 또한 현상윤의 유학 공죄론을 불만스레 검토하면서 유학에다 더 많

은 공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유학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오늘날 한국의 전통 철학 연구자들은 바로 현상윤과 이상윤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의 후예들은 이 둘을 기억하고 그들의 대표적 저작을 가려 뽑은 듯하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사 편수관으로 일했던 이능화의 《조선도교사》(1959년)는 한국 도교에 대한 선구적 연구다. 분명한 사관을 가지고서 한국 도교에 대해 체계적 서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근 100여 종에 이르는 도교 관련 자료를 끌어다 쓴 것만으로도 그 가치는 높이 인정할 만하다.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도교가 한국 문화에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도교적이다. '없는 듯하면서도 없는 데가 없는' 모습으로 도교는 한국 사상과 문화·사회와 관계 맺고 있는 것이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한국 도교의 모습을 이

# 숨겨진 야심 없는 투명하고 담담한 글

서지문 지음 《어리석음을 탐하며》를 읽고

김정란 · 시인 · 상지대 교수

## 20세기 국내 철학분야 고전

| 분야   | 저자  | 책제목        | 연도            |
|------|-----|------------|---------------|
| 유학   | 정인보 | 양명학연론      | 1933          |
|      | 현상윤 | 조선유학사      | 1949          |
|      | 이상은 | 퇴계의 생애와 학문 | 1973          |
| 동양철학 | 이능화 | 조선도교사      | 1959<br>(영인본) |
|      | 고형곤 | 선의 세계      | 1971          |
| 서양철학 | 박종홍 | 인식논리       | 1972          |

책에서 풍부한 내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연세대와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고형곤의 《선의 세계》(1971년)는 불교 가운데서도 특히 선종(禪宗)의 철학을 서양의 하이데거 철학과 비교하고 회통을 시도한 연구서다. 그는 이 책에서 특히 존재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서 철학의 만남을 위한 연구작업은 지금 우리들이 가장 많은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며 또한 이후 가장 높이 평가받을 부분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박종홍의 《인식논리》(1972년)는 유일하게 '순수한' 서양 철학 방면에서 선정된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칸트 이래 대표적인 서양 철학의 인식론을 교과서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는 경성제국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교수를 지낸, 그야말로 현대 한국 철학의 대부이다. 이 책은 그의 수많은 역작 가운데 하나다. 젊어서는 서양 철학 연구에 진력했지만 후기로 오면서 동양 철학 연구에 깊이 침잠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의 보다 풍부하고 완숙한 저술을 만년에서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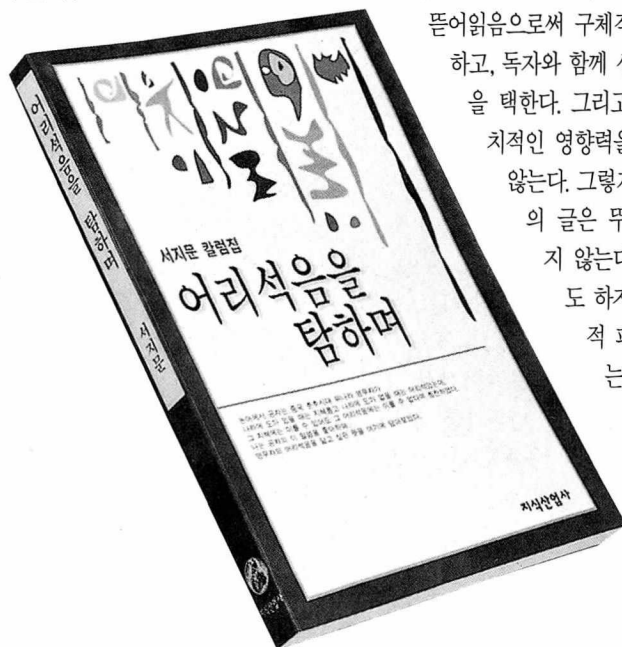
## 1세대 이후 연구활동도 평가돼야

글을 맺으면서 남는 아쉬움은 이번에 선정된 책이 모두 이 분야 제1세대에 의한 70년대 전반까지의 저작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조심성과 겸양에 따른 결과라고 보아야지 혹시라도 그 이후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읽혀서는 안된다는 쓸데없는 우려를 덧붙여 본다. ❖

한 사람의 지식인이 칼럼을 쓴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또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일들에 대한 즉각적 논평이 위주인 만큼, 자칫 잘못하면 논리적 실수를 저지를 위험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학계 안에는 일종의 '상아탑주의'가 완고하게 형성돼 사회적 발언 자체를 금기시하는 풍토가 만만치 않은 억압을 행사한다. 뭔가 실용적인 일을 하는 것을 '학자답지 못하다'고 여긴다. 이래저래 지식인, 그것도 대학교수가 칼럼을 쓴다는 일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서지문 교수의 《어리석음을 탐하며》는 참여에 대한 열정으로, 이런저런 위협을 감수하고 쓴 글모음이다. 우리 사회의 다채로운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진단은 확고한 현실 인식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락에 대한 분노가 숨어 있다. 그 분노가 이 책을 힘있게 만든다.

이 책의 강점은 추상적이고 거창한 주제보다는 구체적인 문제를 선택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누구를 위한 로마자 표기법인가>에서 글쓴이는 외국어 표기법의 문제가 의외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 이 책은 서지문 교수가 참여에

대한 열정으로, 이런저런 위협을

감수하고 쓴 글모음이다. 우리 사회의

다채로운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진단은 확고한 현실인식과 따뜻한

관심이 바탕이다. 무엇보다

타락에 대한 분노가 숨어 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우리 사회가 큰 문제 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원칙이 부재하는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또 별 생각없이 지나치는 TV의 언어 사용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꿈꾸는 예를 들어가며 보여주는 <국민의 반감이 나빠서?>라는 글을 읽다보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나 허술하단 말인가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이러한 특성은 이 칼럼집의 가장 큰 장점이자 남성지식인들이 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정치지향적인 칼럼집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여성의 인식적 특징이 발휘되었기 때문일 터인데, 글쓴이는 남성 칼럼니스트들과 달리, 야단치고 훈계하기보다는 꼼꼼하게 뜯어읽음으로써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는 방식을 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지문의 글은 뚜렷한 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절대로 논리적 파탄에 빠지지 않는다. 숨겨진 야심



김정란 교수.

이 없으므로 투명하고 담담하다. 남성 칼럼니스트들의 글을 읽다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과도하게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수사가 논리적인 파탄을 숨기기 위한 전략인 경우가 많다. 대증적으로 유명한 칼럼니스트일수록 그런 경향이 농후하다.

글쓴이의 여성적 특질은 여성문제를 다룰 때 가장 빛나게 발휘된다. 여성 문제를 다룰 때, 글쓴이의 글은 힘차며 감동적이다. 글쓴이의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비탄이 글에 실리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대 문제에 관한 몇 편의 글은 아주 뛰어나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고 싶어하는 대다수 여성, 특히 여성지식인의 허위의식을 통렬하게 깨부수는 힘을 보여준다.

그러나 몇가지 불만은 있다. 글쓴이의 관심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서 때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이 건강하기는 하지만 때로 지나친 원칙주의를 고수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문학전공자의 글치고는 문제가 너무 밋밋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성지식인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귀한 성과물로 여겨진다. ❖

지식산업사/A5신/282면/8000원